

■ 경쟁력 강화 나선 김종호 금호타이어 대표

“업계 1위 탈환위해 합의안 통과 절실”

극적으로 타결한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11~12일 예정된 가운데 8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은 김종호 대표이는 “합의안 통과는 회사가 업계 1위를 탈환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높은 기술력을 활용해 광주공장을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노조 내부에서 잠정 합의안을 놓고 ‘백기투항’이라는데.

▲누가 이기고 지는 내용의 협상이 아니었다. 가리고 있는 ‘금호타이어호’를 살리기 위해 노사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다.

-찬반 투표가 남았는데.

▲가결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 직원들은 쌍용차 노조와는 다르다. 49년된 회사다. 쉽게 이뤄진 게 아니다. 초기 임금 협상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 외에 해결 방법이 없을 줄 알았다.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직원들을 만나 대화할수록 느꼈다. 직원들을 믿는다.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

▲이번 협상 타결은 시장 1위 탈환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회사 안팎 상황이 예전과는 다르다. 얼마나 위기인지, 경쟁 회사에 어느 정도 뒤쳐지고 있는지, 중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등을 직원들도 알게 됐다. 우



“광주 공장 기술력 좋아
고부가 제품 생산 육성”

리 직원들은 현명하다. 쌍용차 사태처럼 만신창이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부결되면... 희망이 없다고 본

다. 공장 축소하는 길 밖에 없다.

-광주공장은 어떤가.

▲솔직히 산술적으로는 답이 안나온다. 공장 경쟁력이 거의 없다. 다만, 기술력은 있다. 남들이 못 만드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광주공장이 지역 제조업의 상징이라는 것도 같다. 지역민들이 지금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준 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들의 상여금 등이 크게 줄게 생겼는데.

▲안타깝다. 그렇다고 당뇨병 환자에게 설탕을 계속 줄 수는 없다. 어느 누가 와도 달라지지 않는다. 일감을 더 많이 따 실질적인 임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게 제일 좋다. 입사 이후 30년 영업만으로 지냈다. 파업 중에도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파업으로 불규칙한 생활이 없어지면 거래 물량을 늘리겠다는 말을 들었다.

-업계 1위 탈환은 언제쯤 가능한가.

▲단시간내 안될 것이다. 올해, 내년까지는 힘들 것이다. 영업 활동도 강화하고 기술력도 높일 것이다. 내후년이면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좋은(이익이 남는) 회사가 될 것이다. 지금 어렵지만 그때는 반드시 노조원에게 돌려드리겠다.

/김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백기투항 아닌 정리하고 막기 위한 것”

금호타이어 노조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합의한 것은 조합원들의 정리하고를 막기 위한 절박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백기투항’이라는 노조 일부의 거센 반발에 대한 해명이다.

노조는 이날 ‘정리합의’에 대한 지회 입장에서 “해고 예고 통보는 사실상의 정리하고였다. 조합원의 생사 앞에 더 주자할 수 없는 결단이 필요했다”고 합의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노조는 “예년과 달리 개인별 평가 점수표 개별통보, 명예퇴직 신청 점수, 해고 예고통보 등으로 정리하고를 기정 사실화했고 저희와 논의절차 없이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 법적 효력을 갖추려고 직장폐쇄를 했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는 ‘정기승호 1년 보류, 공정지원금·비로금·교통비·체력단련비·의료비 지원 1년간 유보, 품질향상 인센티브 적용, 무급 순환휴직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기존 입장은 철회했다”고 일정 부분 성과를 제시했다.

또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보전방안은 하락의 원인인 ‘휴·연근 중단 해소, 퇴직금 증간경산 및 각종 익자금 지원회복 확대’ 등을 하도록 했다는 점도 성과로 분석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따른 보전 방안을 관찰하지 못한 것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찬반 투표에 임하는 견해를 밝혔다.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12일 있을 예정이다. /김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문화재단, 금호석화 주식 7만주 매수

박찬구 전 회장 견제 포석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이 금호석유화학 주식 7만주를 매수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지난 3일과 4일 보유중인 금호산업(12만주)과 아시아나항공(14만5천304주) 주식을 팔고 금호석유화학 보통주 7만 45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로써 문화재단은 금호석유화학 보통주를 총 12만5450주 확보해, 지분율을 기준 0.21%에서 0.49%로 높였다.

박삼구 회장측은 이미 우호지분을 포함해 금호석유화학 주식 46.01% (박재영 씨 지분 제외)를 확보, 동생인 박찬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부

문 전 회장 부자(18.47%)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박삼구 회장측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아 형제간 지분경쟁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화재단을 통한 지분 확대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박찬구 전 회장 쪽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찬구 전 회장은 지난 8월 초 금호석유화학 사내개시판을 통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1일 법무법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박찬구 전 회장 부자와 박삼구 회장측은 이미 우호지분을 포함해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확대해 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토지주택공사 “중대형 아파트 안 짓는다”

2012년까지 인력 24% 감축

오는 10월1일 출범하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현주택공사의 통합 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체 인력의 24%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고 전 직원 연봉제를 도입한다.

또 보금자리주택과 녹색성장 사업 등 국정 현안 사업의 추진 기능을 강화하면서 중대형 아파트와 집단에너지, 임대주택 운영 사업 분야에선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국토해양부 국토원 제1차관과 한 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 내정자는 8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주택공사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토지주택공사(통합공사)는 앞으로 협력기능 위주로 두 공사가 맡아온

역할을 개편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기 했다. 이에 따라 정부 핵심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토지은행(랜드뱅크), 저탄소 녹색성장(녹색밸류) 등 3개 분야의 사업기능은 충실히 수행하면서 택지개발, 신도시 개발, 도시개발 업무를 한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해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로 했다.

통합공사는 통합에 따른 부실을 털 어내기 위해 전 직원 연봉제를 도입하고 지사 건물 등 불필요한 중복 자산과 재고자재(13조원 규모) 및 미분 암 주택(3조원 규모)을 조기에 매각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쌍용차 노조 민노총 탈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일 상급단체인 민노총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73.1%로 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이날 낮 12시30분~1시30분 평택·첨운공장, 서울·대전·광주·부산 등 A/S지회 사업장에서 일제히 실시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 508명 가운데 과반수인 2천642명(투표율 75.3%)이 참여해 73.1%인 1천 931명이 탈퇴에 찬성했다.

반대한 조합원은 9.9%인 264명에 불과했다.

민노총 탈퇴안이 가결됨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상급단체 없이 기업노조로 전환되며 국내 완성차 업계로는 처음으로 독립노조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코스피지수
1,619.69 (+11.12)

코스닥지수
526.85 (+1.24)

금리(국고채 3년)
4.31% (-0.02)

원·달러 환율
1,233.20원 (-0.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민노총과 결별

8일 오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이 ‘민노총 탈퇴’를 묻는 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소 주변에는 아직도 깨진 벽돌 등 점거 피업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 02-711-1140, 5210 번 011-802-2532
(광주은행 신분점장, 대인동 소분사건나파)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 수원코리아밸드 공인증개사 사무소

☎ 062)951-6800
H.P. 010-3666-8949

수완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팔리스타워빌딩
중앙메디컬빌딩 (분양임대)
뉴타운빌딩

상가분양사무소 직원모집

- 남 0명, 여 0명(기본급+성과급)
- 나이 25~35세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월물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길경기	초지기	비고
동광동 대261,간1038	13억4천	30억	예상장	
송정동 대130,2499	13억2천	9억8천	교회사단	
송정동 대192,3434	9억7천	4억3천	자지지상층	
임대동 대490,2409	64억6천	36억2천	평형상	
도봉동 대181,2582	8억9천	3억6천	유식점/모임장	
신도동 대984,2186	10억7천	4억8천	가게/사무실	
목포동 대339,간133	5억4천	3억	유동주점	
한남동 대495,22536	23억	8억2천	관공동	
주례동 대704,간1008	6억8천	4억7천	미트로복랑	
한성동 대704,간2005	19억3천	8억6천	미트로복랑	
한성동 대728,간3280	27억	15억	8층상가/월정	
한성동 대238,2514	2억9천	2억	월정/아디자인	
한성동 대158,21462	2억9천	2억	월정/아디자인	
우신동 대740,간3118	35억8천	16억3천	7층월정	
개량동 대151,2407	3억5천	2억4천	월정	

아파트/빌라 경매사 010-5879-0005

소재지	대지/건물	길경기	초지기	비고

<tbl_r cells="5" ix="1" maxcspan="1" maxr